



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 증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미국의 경기둔화로 세계경제의 위축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,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상됨.
 - 일시 진정 국면을 보였던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사태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문제와 경기둔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음.
 - 파이낸셜타임즈는 현 상황을 '새로운 징조'로 규정하고, 위기의 진원지가 그리스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이동해 유로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논평함.

- 8월 3일 유럽 국채시장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유로존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
 - 8월 3일 현재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대비 25.5bp 상승하여 한 때 6.455%까지 급등하였고,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고 6.129%까지 상승함.
 - 10년 만기 독일 국채에 대한 스프레드도 유로존 도입 이후 사상 최대폭으로 확대됨.
 - 독일 국채에 대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는 각각 404bp, 384bp로 확대되었는데, 이는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요청 때와 비슷한 수준임.
 - 또한, 프랑스 국채와 독일 국채 간 수익률 스프레드도 사상 최대폭인 75bp로 확대됨.

- 이러한 유럽 금융시장의 요동은 유로지역 성장둔화 전망과 미국의 경기 둔화로 재정이 취약한 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함.
 - EU의 경기신뢰지수(ESI)는 6월의 105.4포인트에서 7월 중 103.2포인트로 낮아져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시현하였고,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6월의 53.3포인트에서 7월 중 51.1포인트로 하락함.

- 독일과 프랑스의 PMI지수는 각각 21개월, 23개월래 최저치를 시현하였고, 스페인은 19개월 이래 가장 큰 하락세를 보임.
- 소비자 및 기업의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냄.
- 7월 유로지역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의 역할 확대 방안은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됨.
 - 유로지역 정상회의는 EFSF의 기금 확대를 통해 위기를 맞은 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나, 전문가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 대해 EFSF를 통한 구제금융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함.
 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EU가 유로지역 위기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힘.
-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지역 3위, 4위 경제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핀란드 총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발행 금리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언급함.
 - 금융시장은 여름휴가로 거래량이 저조해지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금리가 당분간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함.
 - 파이낸셜타임즈는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시장 혼란이 여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.
 - 유로지역 일부 국가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한편, 스위스 중앙은행(SNB)은 미 달러화에 대해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인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.
 - SNB는 미국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스위스 프랑에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실시함.

(Financial Times 등 8/4)